표현교육 연구의 반성과 제언

최 미 숙*

〈차 례〉

1. 서론
2. '표현'의 개념과 표현 교육 연구의 범위
3. 표현 교육 연구의 경향
4. 표현 교육 연구를 위한 제언
5. 결론

1. 서론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 이후 국어 교육이 겪은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표현 교육의 강조일 것이다. 그 이전까지 국어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표현 교육에 대해 제5차 교육과정 이후 실질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이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표현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국어교육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초기에는 주로 이해 영역의 교육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학교 현장에서의 표현 교육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 영남대학교

표현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해 교육 연구보다 다소 출발은 늦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그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표현 교육 연구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자 한다. 그러한 논의를 통해 표현 교육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며, 그런 작업을 토대로 앞으로의 표현 교육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언하고자 한다. 논의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개별 박사 논문이 지니는 성과나 한계에 관한 논의를 지양하고 전체 연구를 몇 개의 경향으로 나눈 후, 각 연구 경향이 지니는 표현교육사적 의의와 한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논의하는 각 연구 경향의 한계란 개별 논문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것임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2. '표현'의 개념과 표현 교육 연구의 범위

우선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표현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사상 등을 밖으로 드러내는 언어 행위라고 한다. 여기에서, 밖으로 드러내는 언어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표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발신자가 자신의 판단을 의도적인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다. 문자나 음성으로 '무슨 의미를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의미를 표시해 담는 음운적 또는 표기적 형태로서, 의미된 바(내용)와 그것을 말한 방법의 구별이 필요하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의미된 바, 즉 내용과 방법을 구별하고 방법만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말하는가 혹은 어떻게 쓰는가로만 표현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미 정리된 생각을 말하거나 쓰기만 하는 것이 '표현'이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내용을 생각하는 과정이 글을 쓰거나 말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 표현의 과정에서 생각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표현 방법을 달리하면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밖으로 드러내는 언어 행위만으로 표현을

정의하는 것은 표현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모두 통틀어 논의하지 않으면 '표현' 개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하면, 표현의 문제는 어떻게 말하거나 쓰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차원으로 표현을 정의한다는 것은 표현의 의미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차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창출해 내는 창조적 행위로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 주체가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토대로 하여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생각이나 관점을 창출해 내는 능력과 관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현의 개념을 이렇게 볼 때, 표현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포괄하여 '표현 교육'으로 칭하고자 한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그리고 일상적으로 말하고 쓰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말하고 쓰는 교육, 즉 일상언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 교육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전제하고자 한다.

3. 표현 교육 연구의 경향

그 동안 이루어진 표현 교육 연구를 돌이켜 보면 연구의 경향을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박사 논문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방식을 지양하고 표현 교육 연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연구의 경향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즉 표현 교육 방법, 표현 교육 내용, 표현 교육의 틀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표현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우선, 표현 연구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 '표현 교육 방법'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이재승, 1999), 장르 중

심 작문 교육(박태호, 2000), 상황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이주섭, 2001)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전의 방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경향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표현 교육이 표현 결과만을 강조했을 뿐, 표현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이전의 쓰기 교육은 쓰기의 결과, 즉 생산된 글만을 강조하면서 교육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쓰기 교육에서는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 후 그 글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고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글을 쓰는 방법을 제대로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실질적으로 길러주기 위해 교사들의 역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은 기존의 쓰기 교육 현장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으로, '과정적 쓰기'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전략)' 부분을 선명하게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과정'이라는 개념만 남게 되고 과정만이 강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교재 구성을 할 경우나 현장에서 쓰기 교육을 할 경우, '과정 중심적' 방법을 구현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표현하는 과정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 그 과정을 분절화시키기만 했을 뿐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제어할 수 있는 힘 혹은 원리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쓰기 교재 구성에 있어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각 과정별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위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재만 다르게('소재의 위계화') 구안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 결과 과정 중심 쓰기 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잘 쓰거나 잘 다듬어진 최종 산물로서의 글보다는, 종종 아이디어 생성 및 조직 단계의 '거친 뼈대'를 그대로 옮겨놓는 수준에 머문 글을 만나곤 한다.

한편 '과정 중심'을 '쓰기 활동의 전-중-후 과정을 강조하는 것'과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눌 때, 대부분의 과정 중심 연구물들은 이 중 전자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자의

과정이 후자와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을 때, 즉 전자를 거쳐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과정의 나열로만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정 중심 쓰기가 글을 쓰는 과정을 안내하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 경향은 글을 쓰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닐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표현한 글의 내용에 대한 판단, 혹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교육은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이다. 기존의 과정 중심 작문 이론이 '텍스트' 요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장르 중심의 작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 상황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을 강조하면서, 말하기·듣기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본질·원리·태도에 상황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쓰기에 있어서 '텍스트'를 고려하자고 한 것이나 말하기·듣기에 있어서 상황맥락을 반영하자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쓰기, 실질적인 말하기·듣기 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가 지니는 장점은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고민해 오던, '표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표현 교육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이 연구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초등학교 표현 교육의 경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기초적인 방법과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적절히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과정 중심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또 상황맥락을 고려하면서 지도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은 충분히 예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연구에서 각 단계·과정별로 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 각 텍스트를 쓰는 구체적인 방식, 상황맥락에 따라 말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그것은 공허한 형식적인 표현 교육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쓰기 전, 쓰기 중, 쓰기 후에 해야 할 활동을 과정별로 제시하거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표현의 각 과정을 분절화하고, 분절된 단계의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각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만족할 우려가 있다. 또, 실질적인 표현 내용과 표현 방식이 맺는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인 틀에 관한 교육으로 그칠 우려 또한 있다.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질적으로 좋은 글을 썼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달리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할 것이다.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예가 내용 생성 전략에서 중요한 예로 제시되는 브레인 스토밍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전략이 브레인스토밍인데, 브레인스토밍은 일반적인 표현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생성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실 제한적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이 전략이 지니는 문제는 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표현 주체의 판단이나 평가를 뒤로 미루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브레인 스토밍의 창안자인 오스본은 '판단은 나중으로 미룬다. 자유스러울수록 좋다. 생각이 많이 창출될수록 좋다.'는 것을 브레인 스토밍의 원칙 중 하나로 들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판단은 나중에 미룬다'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의 미덕은 "어떠한 가능성도 잘라내지 말고 그저 종이 위에 적어 나가는(Flower, 1998:230)"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수시로 이루어지는 판단의 과정을 배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생성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이 방법의 기본 전제는 사고의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양으로 축적된 아이디어를 목록별로 정리하고 발산시켜서 목적한 바를 얻는다는 것(국어교육연구소, 1998:367)"이다. 이렇게 본다면 브레인스토밍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해야 할 경우에 유용한 전략이거나 혹은 내용 생성 단계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표현해야 할 내용을 생성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경우이든 표현해야 할 목적이 있게 마련이고, 표현해야 할 상황이 있게 마련이며, 표현해야 할 내용이 있게 마련이다. 표현 목적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표현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하면서 내용을 생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판단'의 과정인데 이러한 판단의 과정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 생성의 중요한 부분을 뒤로 미룬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내용 생성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략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집단적 사고 기법으로 활용하는 전략(국어교육연구소, 1999)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의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것'에서 보듯이 질적인 판단보다는 사고의 양을 중시하는 경우에 적절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어교육에서는 이제까지 내용 생성 전략의 대표격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만 하면 내용 생성은 되는 것으로, 즉 내용 생성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형식만 강조하는 것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앞에서 논의한 연구 경향이 주로 표현 교육 방법과 관련이 있다면 두번째 연구 경향은 표현 방법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표현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경향은 두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축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언어의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효과적 표현이 이루어지는 핵심 기제와 그 표현 양상을 밝혀낸 연구이며, 다른 하나의 연구는 문학적 글쓰기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표현교육 내지는 창작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구안해 낸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적인 특성은 특정 관점에서 효과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를 분석하거나 혹은 뛰어난 표현 방식을 보여준 작가의 표현 방식 그리고 작품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표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을 추출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전자의 연구로는 이성영(1992), 이종철(1993), 노은희(1999), 김정자(2001), 권순희(2001)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연구로는 이지호(1997), 최미숙(1997), 최인자(1997), 유영희(1999), 염은열(1999),

김혜영(2000)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로 효과적인 표현 행위를 문제삼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표현 방법, 표현 행위의 제반 범주에 대한 이론적 탐색, 정서 및 태도의 문제,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역할 등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 방법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표현 방법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연구는 논리성, 합리성의 문제와 더불어 정서 및 태도의 문제, 또 일상 언어 표현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학적 표현 등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표현 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으며, 또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 방법을 문제삼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이 연구 경향은 주로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측면보다는 미시적인 관점 혹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일상 언어 현실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효과적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는 언어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맥락, 사회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언어 상황을 전제로 한 연구 관점으로 확대하여 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후자의 연구는 문학작품의 표현 방식을 귀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표현 방법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모든 보편적인 표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현방법보다는 표현 주체가 처하고 있는 상황, 구체적인 글쓰기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표현방법이 달라진다는 것, 따라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용과 표현이라는 두 계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 대한 표현 주체의 태도와 관련지어 표현 방법을 논의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 작가나 작품을 통해 귀납적으로 추출해낸 표현 방식이 과연 보편적인 표현 방식으로 화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매개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독특한 표현 방식'을 밝혀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3) 표현 교육의 틀에 관한 연구

이 연구 경향은 주로 국어교육 연구에서 표현 교육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거나(원진숙, 1995) 말하기·듣기 교육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는 특성(전은주, 1999)을 지닌다. 쓰기 중에서도 논술문을 중심으로 하여 텍스트 구성 원리, 평가 방법, 지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논의(원진숙, 1995)한 연구의 경우, 표현교육에 관한 연구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에 특정 텍스트 유형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 및 방법 그리고 평가까지 아우르면서 연구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론 연구와 실제적인 적용까지 연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표현 교육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연구는 논술문을 쓰는 데(표현하는 데) 필요한 '생각하는 힘, 사고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형식적인 표현의 문제에 주목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논술문의 표현 영역을 '맞춤법, 띄어쓰기, 적절한 어휘 사용, 문장의 정확성, 응집성, 적절한 문체'의 차원에서 논의한 점은 논술문에서의 표현의 문제를 내용과 결합된 표현이 아니라 글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 이 연구 경향에서는 말하기·듣기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학생들의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말하기·듣기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전은주, 1999). 이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었던 말하기·듣기 연구 상황에서, 말하기·듣기 활동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예: '말하기 불안' 등) 말하기·듣기 교육의 전반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말하기·듣기의 전체 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다보니 논의의 상당 부분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4. 표현 교육 연구를 위한 제언

이제부터 제언하고자 하는 표현 교육 연구의 방향은 앞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되,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연구이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온 연구임에도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연구, 또 새롭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연구들임을 전제하고자 한다. 또 이미 소논문을 통해 연구의 일단을 보인 경우도 있으나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독립적으로 제언한 경우도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1) 표현 내용과의 긴밀한 상관성 확보 필요

우선 '표현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된 방법에 대한 연구'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어교육학 사전(1999)에 따르면 표현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표현의 내용(자신이 드러내려는 정서, 사상 등), 둘째, 표현 수단(말, 글), 셋째, 표현하는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그 동안의 표현 교육은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표현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표현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다루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며, 그것을 표현 방법과 긴밀하게 관련지으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표현 교육 연구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표현의 내용과 표현 방법의 결합에 관한 부분이며[1], 그것은 표현 내용을 괄호로 처리해 버린 데서 찾을 수 있다. 표현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표현 방법에 대한 논의는 자칫 허망해질 우려가 있다. 우리는 학교 현장으로부터, 그 동안 표현 교육을 10년 넘게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표현 능력이 신장되고 있는가 혹은 신장되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자주 듣곤 한다. 학교 현장에서 표현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은 분명하다. "분명

1) 물론 이러한 연구를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 경향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좀더 폭 넓은 언어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과 방법의 구체적인 상관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 글쓰기는 따라서 단순하게 쓰는 기술을 연습한다는 차원을 넘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양혜정, 2002:189)"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괄호로 처리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주목하여 교육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발달 단계가 높은 학생들이나 유능한 화자 및 청자일수록 내용 생성 과정에서 표현의 성패가 결정(염은열, 2000:37)"된다고 한다. 우리가 잘 쓴 글, 혹은 뛰어난 글이라고 평가하는 글의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거나, 말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글을 쓰거나 말한 사람의 생각이 깊거나 독창적이고 그러한 깊고 독창적인 생각이 언어로 잘 드러난 경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상황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내기만 하는 경우는 실상 별로 없다. 대부분 표현 주체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로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표현 능력의 신장은 그 두 가지 계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사실 표현 능력 평가 상황에서 내용과 표현으로 분리하여 평가하기 힘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내용과 표현은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분리하여 평가하기가 힘든 것이다. 물론 표현 내용에 대해 그동안 관심을 아예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표현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용의 통일성, 주제의 선명성, 논증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기는 하였지만 그 때에도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과 결합하여 논의해야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문학적 글쓰기 방법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 상당수가 내용과 표현 방법의 관계에 주목하여 연구하였음은 앞에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그 긴밀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읽기'[2]에 토대를 둔 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

표현 내용과 긴밀한 관련을 지닌 표현 방법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것은 읽기를 토대로 한 표현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3] 본고는 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읽기'를 토대로 한 표현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현이란 일차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읽은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언어 행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읽기의 의미와 읽기의 대상을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책에서부터 편지, 카드,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자신과 타인의 삶, 우리의 사회와 문화 등 이 사회에서 접하는 무엇이든 읽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생각한 것을 표현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쓸 때조차 자신의 체험에 대해 반성적 거리를 두면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즉 자신의 체험을 대상으로 하여 읽으면서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표현 교육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4]

표현이란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인적인 행위이자 동시에 사회적 행위이며 또 문화적 행위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언어 활동이다. 여기서 사회적이자 문화적인 행위란 결국 자신이 처하고 있는 사회와 문화를 읽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자신이 생각한 바를 언어로 드러낸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다. 자신이

---

2) 여기에서 말하는 '읽기'란 문자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석하며,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임을 전제하고자 한다.

3) 필자는 국어과 평가 논의를 통해 영역 통합적 평가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최미숙, 2000). 그것은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 활동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며, 또 읽은 바에 대해서 표현하게 하는 것이 국어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4) 염은열도 이에 대해 '이해에 기반한 표현교육'이라는 의미로 논의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해'라는 용어를 피하고 '읽기'라는 용어를 취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해'라는 용어가 자칫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 국한될 우려를 피하고자 함이며, 또 '읽기'라는 용어가 지니는 능동적인 국면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접하고 있는 대상을 이해, 해석, 판단, 평가하는 활동 등을 포괄하는 읽기의 과정 혹은 결과를 언어로 드러내는 표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읽기에 관심을 두면서 표현 활동을 강조한다면 내용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는 표현 교육 논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했던 PISA[5]에서도 literacy를 정의하면서 단순히 주어진 글을 해독하는 능력이 아니라 배운 지식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글의 내용을 결부시킬 수 있으며, 특정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최미숙·노국향, 2001). 물론 이는 reading literacy에 대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읽기를 토대로 해서 쓰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 효과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본 다양한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이제 표현 연구의 폭을 좀더 넓힐 필요가 있다. 그 하나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본 다양한 언어 현상에 대해 폭넓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필자와 독자와의 관계,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라는 개별적이거나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런데 이에서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볼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화자와 청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의 측면에 따라 표현의 문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처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위치뿐

5) PISA는 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평가로,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로 약칭)를 약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신뢰롭고 타당한 자료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로, 각국의 인적 자원의 수준을 읽기 능력, 수리적 능력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의 측면에서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98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OECD의 경계를 넘어 32개국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학업성취도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 아니라 말을 듣거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위치 혹은 화자의 청자, 필자와 독자의 권력 관계를 토대로 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언어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논의를 이끌어간다면 좀더 풍부한 표현 방법 혹은 표현 교육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언어 현상을 끌어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 점잖게 이루어지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언어 현상 혹은 평면적인 언어 행위에 주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표현교육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거짓말의 유형이나 표현 방식,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욕망과 그 표현 방식, 우스갯 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욕망의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연구에도 본격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표현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언어 활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표현 행위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표현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현은 한 개인이 처해있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그 동안 표현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구안해낸 모형이나 표현 방법에 관한 논의에서는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런 결과가 생긴 데에는 그 동안 표현 교육 논의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이 결여된, 특정 표현 행위가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관심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표현 행위가 지니는 의미 혹은 표현 행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권력 관계에 대한 좀더 풍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5. 결론

이제까지 논의를 통해 그 동안의 표현교육 연구가 관심을 지녔던 부분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제언 형식으로 논의하였다. 앞에서 제언한 세 가지 연구 관점은 각기 개별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상호 결합할 수 있는 관점이다. 표현 내용에 대

한 관심은 곧 읽기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표현교육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 삶 전반에 대한 읽기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도록 하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언어 현상이나 언어 행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이 형성하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앞에서 논의한 경우 외에도 표현 교육에서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새로 등장하게 된 디지털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다.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펜과 종이를 통해 이루어지던 표현 방식 외에 인터넷 글쓰기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현 교육은 이제 매체의 발달로 인해 표현 방식 또한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하이퍼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표현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구성과 문자, 그림 및 동영상, 음성(음향) 매체를 이용한 표현 교육의 필요성이 시대의 요청이 되었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하이퍼미디어는 평면적인 글쓰기, 문자 위주의 글쓰기 차원에서 벗어나 문자, 그림 및 동영상, 음성 매체 등을 이용하여 하이퍼텍스트 차원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듯 문자, 그림 및 동영상, 음성(음향)의 혼합을 통한 표현 매체의 변화와 노드와 링크를 통한 하이퍼텍스트의 기술 방식으로 인쇄매체에 근거한 기존의 쓰기 표현 방식과는 다른 표현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권순희, 2002:21). 아직은 이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미 우리들의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버린 디지털 글쓰기 방식 자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존의 문자 위주의 글쓰기와 가지는 차이점이나 공통점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각각의 글쓰기 방식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전제로 하여, 앞으로 다양한 표현 교육연구를 통해 우리들의 국어 생활이 지금보다 한층 풍부해지기를 기원하며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 문헌

권순희(2001), 대화 지도를 위한 '청자 지향적 관점'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권순희,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표현 방식, 국어교육학회 제20회 학술 발표대회. 2002.

김대행(1998),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제97호,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김정자(2001), 필자의 표현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김혜영(2000),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글쓰기 방법 연구: 시간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노은희(1999), 대화지도를 위한 반복 표현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박태호(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원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논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

양혜정(2002), 교과협의회를 통해 함께 했던 작문 수업, 『함께 여는 국어교육』 2002년 봄호, 전국국어교사 모임.

염은열(1999),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원진숙(1995), 작문 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방법론 연구: 논술문의 지도와 평가를 중심으로.

유영희(1999),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이성영(1994), 표현 의도의 표현 방식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이재승(1999), 과정 중심의 쓰기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논문.

이종철(1993)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함축적 표현의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이주섭(2001), 상황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논문.

이지호(1997),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 방법론 연구: 「열하일기」의 대상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논문.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의 본질적 개념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최미숙(1998), 한국 모더니즘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최미숙·노국향(2001), PISA 2000읽기 평가 결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인자(1998), 한국 현대소설 담론 생산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Flower, L.(1998), 『글쓰기의 문제해결 전략』, 원진숙·황정현 역, 동문선.

Flusser, V.(1998),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윤종석 역, 문예출판사.

〈초록〉

표현교육 연구의 반성과 제언

최 미 숙

이 연구는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표현 교육 연구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자 한다. 그 동안 이루어진 표현 교육 연구를 돌이켜 보면 연구의 경향을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즉 표현 교육 방법에 주목한 연구,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표현 교육의 틀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표현 교육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하나는 표현 내용과의 긴밀한 상관성을 지닌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읽기'에 토대를 둔 표현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본 다양한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매체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표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표현 교육연구를 통해 우리들의 국어 생활이 지금보다 한층 풍부해지기를 기원하며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핵심어】 표현 교육, 표현 교육 연구, 표현 방법, 표현 교육의 틀, 디지털 글쓰기

〈Abstract〉

The reflection and suggestion of the study on the expression education

Choi, Mee-sook

This study explores reflexively the study on the expression education which was studied in dissertations during that time. The study on expression education is classified in three trends. The first trend notes the method of expression education, the second studies on the method of expression, and the final the frame of expression education. Being based on this investigation, I propose the prospective directions of expression education. Firstly, the study on expression education is necessary which considers expression contentions. Secondly, the study on expression education ought to be based on the groundwork which reflects 'reading'. Finally, I propose it be necessary to study on the various language appearances which are in social, cultural context, focusing on the method of digital writing which is greatly influencing our language expression. It is hoped that our language life be prospectively wealthy by the diverse studies on expression education.

[Key words] the expression education, the study on the expression education, the method of expression, the frame of expression education, digital writing